

2019년



해외출장 가이드

수단 카르툼 출장자료

【 목 차 】

I. 수단 개황	1
II. 출장 참고사항	3
III. 경제/산업 동향	7
IV. 무역/투자 동향	11
V. 수단 역사 및 한국과의 관계 ·	16





1. 수단 개황

국 가 명	수단공화국(Republic of the Sudan)
위 치	아프리카 대륙 동북부, 이집트, 리비아, 차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이디오피아, 에리트리아, 남수단 (7개국) 및 홍해와 접경
면 적	186만km ² [※한반도 면적의 8.6배], 세계 16번째, 아프리카 3번째 큰 면적
기 후	북부-사막지대 (여름철 섭씨 40도 이상 건조) 남부-사바나지대 (우기와 건기구분, 일교차 심함)
수 도	카르툼(Khartoum) ▷인구 1천만명 추정 (자매도시 Omdurman 포함)
인 구	42백만명 (2018년, 수단 통계청 발표 추정치)
주요도시 (인구)	○ Khartoum(수도 800만명), Port Sudan(항구, 30.5만 명), Wad Medani(27만 명) ○ Kassala(36만 명), Omdurman(280만 명), El Obeid(28만 명)
민 족	아랍(70%) Fur, Beja, Nuba, Fallata 등
언 어	아랍어(공용), 영어 등 70개 언어, 방언 사용
종 교	이슬람(Suni 파), 크리스티교(소수)
건 국 일	1956년 1월 1일
정부형태	대통령제 연방 (16개 주) *2019.4월 쿠데타 발발, 9월 민군합동 과도정부 출범예정
국가원수	▷ Abdul-Fattah al-Bruhan (민군합동과도정부 수반 내정)
명목 GDP	2018년 USD 308억 (EIU)
실질경제 성장률	2018년 -2.3%, 2019년 -2.5% (EIU, 2019년은 8월 기준 전망치)
1인당GDP	USD791(명목) * 2018기준, EIU, IMF 자료 기준
실 업 율	19.5% (2018년 IMF 추정치)
물가 상승율	72.9%(EIU, 2018년 기준)
화폐 단위	SDG (Sudanese Pound)
환 율	US\$ 1 = 45SDG(공식환율), 60SDG(시장환율)(2019.8월 기준)
외환 보유고	US\$ 122백만 (EIU, 2018년 추정치)
산업 구조	농·축산업(28%), 2차산업(21%), 서비스업(52%)
교역(2018)	US\$ 34.8억(수출), US\$ 78.5억(수입) (2018년, 수단 중앙은행)
대한 교역 (2018)	○ (대한 수출) : 5천77백만 달러(+166%) - 주요 수출품목 : 원유, 동스크랩, 연괴, 알루미늄 스크랩 등 ○ (한국으로부터 수입) : 127백만 달러(-22.3%) - 주요 수입품목 : 건설중장비, 자동차 및 부품, 축전지, 의약품, 합성수지 등

자료 : EIU, IHS, 수단중앙은행, 한국무역통계

수단 지도

- 수단은 대통령제 연방국가로 하기 16개주로 구성
- 이중 반군 활동 지역인 다르푸르(Darfur), 남코르도판(South Kordofan), 블루나일(Blue Nile) 지역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단체로 이동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카르툼 외 지역 방문 시 콜레라, 말라리아, 황열병 등 풍토병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예방 접종 및 조치에 유의 필요





2. 출장 참고사항

☐ 비자/예방접종 : 주한 수단대사관에서 약 3주 소요

- 비자는 주한 수단대사관에서 발급 받아오는 것이 편리
 - * 소요기간 및 수수료 : 10일 내외, 110,000원
 - * 구비서류 : 여권원본(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 및 여권용 사진 1매, 출장증명서(원본), 초청장 사본 및 초청장 발급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초청장은 도착전후로 출장기간을 여유 있게 명기하여 요청
- 황열병은 출장 2주전 접종 권고 (필수 사항은 아님)
 - * 접종처 : 국립 의료원(1588/1775), 인천 검역소(032-740-2703), 분당 서울대 병원(1588-3369)
- 말라리아 발병지역으로 황열병 접종시 말라리아 예방약 처방가능, 단 현지에서 피검사로 발병여부 확인/치료 가능한바 말라리아 예방접종은 필수요건은 아님
 - * 항공편 : 중동(두바이, 카타르), 터키, 에티오피아, 케냐 등 경유(직항 부재)

☐ 기후 및 시차

- 낮최고 기온 : 12월 ~ 2월 평균 30도, 4월 ~ 6월 평균 45도,
7-9월 35도, 10월 ~ 11월 40도
 - * 사막기후로 일교차가 심한점을 감안 필요
- 시차 : -7시간, 썸머타임 미실시

☐ 도착후 외국인 등록

- Passport Registration (또는 Foreign Guest Registration) 라고 불리며, 수단 이민국규정에 의거 모든 외국인은 수단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투숙호텔에서 동 등록 서비스를 대행 (단 관용여권 소지자는 등록 불요)
 - USD 60 내외 소요되나, 대행수수료가 포함된 만큼 호텔별로 차등 부과, 미 이행시 출국금지 및 벌금 부과, 호텔 숙박비에 포함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외국인이 공항에서 등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등록시 초청자 레터 필수)

☐ 한국 식당 및 식품점

- 현지에는 한국식당이나 식품점이 없으므로, 현지식, 중식 정도로만 식사가능. 3일 이상의 체류시에는 휴대용 밥, 라면, 반찬 등 구비 권장

☐ 달러화 현금 지참 및 환전 사용

- 신용카드제도 없고 은행에서 달러화 환전후 현지화(SDG/수단파운드) 사용
 - * US\$ 1 = 45 SDG(공식환율), 60 SDG(블랙마켓 시장환율)(2019.8월 기준) 환율 변동폭이 큰점 참고 필요
 - * 영수증 필요시 “파투라” 요구, 레스토랑 등 Tip은 10% 이내 지급



□ 미국 경제제재 관련 국제결제 애로

- 미국발 경제제재(1997~2017) 해제에도 불구하고 여전시 테러지원국 리스트 지정상태로 인해 국제금융 제약, 은행을 통한 달러화 송수신 불가능(현지 은행 T/T 결제 불가). 유로화가 일부 송금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유럽계 은행도 제재에 편승, 이마저도 거부당하는 사례 빈번
 - 주로 두바이나 사우디 등을 통한 송금이 일반화됨

□ 수단 현지의 치안, 의료, 문화 등

- 치안 : 수도 카르툼은 외국인이 도보 이동 가능할 정도로 치안 양호하나 카르툼 외 지역은 안전에 각별한 유의 필요
 - * 2019.상반기 반정부시위, 쿠데타 등 정국 불안 기간중에도 외국인 치안상황은 비교적 양호, 단 시위 격화 가능성에 유의 필요
- 보건 : 위생상태가 전반적으로 낙후, 수돗물 대신 생수 사용 필수
 - 현지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Royal care international 병원 이용 권장 (+249 1 56 55 01 50)
- 워킹데이 : 일요일~목요일, 금/토 휴일, 08:30~16:30분까지 근무
- 주류, 돼지고기 금지, 일반 음식물은 반입가능
- 관광 및 위락시설(술집, 유흥업소 등) 全無
- 의복 : 사하라 사막에 위치, 여름용 긴팔 착용이 유리함(바이어 면담시는 정장 착용 요망). 자외선 차단크림 및 선글라스 구비 권장

□ 인터넷 및 전화 등

- 전력 : 220v/50Hz, 호텔내 무선인터넷(3G/4G) 사용가능(속도, 다소 느림)
- 휴대폰 : 한국에서 로밍 가능(통화감은 나쁨)

□ 현지 도착 항공편 및 픽업 등

- 수단 현지에서 새벽 출발시는 1박 추가가 적절
- 일반적으로 투숙호텔에서 공항까지 무료 셔틀 서비스 제공, 필요시 무역관 요청

□ 수단 현지 진출기업 현황

- 대우 GMC(제약공장운영), 삼성전자, LG 전자 등 대사관 포함 교민 30여명
- 현대/기아차는 로칼 에이전트만 운영



☐ 호텔 정보

○ KANON Hotel (4성급)

- 주소 : Khartoum, Amarat Street No. 15, Khartoum, Sudan
- * 무역관과 도보 1분 바로 인접, Wi-fi사용 가능, 공항 5분 거리
- Tel: +249 183 595959 / <http://www.kanonhotel.com/>
- 숙박비 : 싱글 USD150, 스위트 USD170 내외 (무역관 할인 요율 적용)

○ Rotana Hotel (5성급)

- 주소 : Africa St, Al Khurtum, 수단
- * 무역관과 차량 15분 소요, Wi-fi사용 가능, 공항 10분 거리
- 전화 : +249 18 700 7777
- 홈페이지 : <https://www.rotana.com/rotanahotelandresorts/sudan/khartoum/alsalamrotana>
- 숙박비 : 싱글 U\$270 /1박(조식·세금 포함), 트윈 U\$295 /1박 내외

○ Paradise호텔(4성급)

- 주소 : Khartoum2, Paradise Hotel, Ozone Park SQ
- 전화/웹 : +249 922 142 500 / www.paradisehotels-sd.com/#!/pageSplash
- * 무역관과 차량 10분 소요, Wi-fi사용 가능, 공항 10분 거리
- 숙박비 : 싱글 기준 USD130 내외

○ Corinthia 호텔(5성급)

- 주소 : Nile Road, PO Box 11042, Khartoum, SUDAN
- * 무역관에서 차량 20분, 공항 25분 거리
- 전화/웹 : +249 (0)187 155 555 / <https://www.corinthia.com/en/hotels/khartoum>
- 숙박비 : 싱글 기준 USD350 내외

○ Nantong Hotel(4성급, 중국계)

- 주소: No.439 Block 45 Elbed Khatim Street (Arkweet), +249, Khartoum
- * 무역관에서 차량 20분, 공항 15분 거리
- <http://nantong-hotel.com/en/hotel-nantong-hotel> / info2@nantong-hotel.com
- Tel: +249(01)83528858,
- 스탠더드 싱글 기준: USD80내외

○ Assaha Hotel (3성급, 레바논계)

- 주소 : Khartoum - Africa Street - Near Canadian Embassy
- * 무역관에서 차량 10분, 공항 10분 거리
- www.assahavillage.com/assaha.sud@assahavillage.com/
- Tel: +249-1-155-212-121
- 숙박비 : 싱글기준 USD80 내외



○ Abbasher Hotel (3성급)

- 주소 : Khartoum 2, Elgazira St. with Elmoftie St., Khartoum, Sudan
- * 무역관과 차량 10분, 공항에서 차량 10분 소요, Wi-fi 무료 사용
- <http://www.abbasherpalacehotel.com/> - Tel : +249-187-199-000
- 숙박비: 스탠다드 싱글 기준 USD85 내외

○ Myki Hotel (2성급, 構 VIP Al Basair International)

- 주소: Amarat Street No. 29, Near Saudi Embassy, Khartoum
- * 무역관과 차량 10분, 공항에서 차량 10분 소요, Wi-fi 무료 사용
- Tel: +249 183 566470
- www.mykiresidency.com / info@mykiresidency.com
- 스탠더드 싱글(single size bed) US\$60, 더블(queen size bed) U\$80, 트윈 U\$80

○ Prince Hotel(2성급)

- 주소: 3690 Khartoum, Sudan
- * Khartoum Int'l Fair 전시장과 도보 5분, 무역관, 공항에서 차량으로 20분 소요
- Tel: +249 183 287575 / - www.princehotel-sd.com / info@princehotel-sd.com
- 스탠더드 싱글 기준: U\$90, 트윈 U\$110

*(참고) 호텔비는 일반적으로 숙박비 + Tax(17%) + Service(5%) + Registration fee(5%)로 산정

□ 식당정보 (하기식당 모두 공항, 시내에서 차량 10~20분 내외 거리, google map 검색 가능)

- Rotana Hotel내 뷔페(1층, 현지식, 5성급) *주소, 연락처 호텔정보 참조
- * 두바이 계열 5성급 호텔인 Al Salam Rotana 호텔내 소재, 현지인 선호
- Corinthia Hotel (18층 중식, 16층 뷔페, 5성급) *주소, 연락처 호텔정보 참조
- * 리비아 자본이 투자한 5성급 호텔내, 중식당은 한국인 선호
- Nantong Hotel (2층, 중식. 4성급) *주소, 연락처 호텔정보 참조
- * 중국인 운영 식당, 무난한 중식
- Lantien Hotel (1층, 중식, 2성급) *just off Street 117, Al Khurtum, +249-18-352-3456
- Assaha Hotel (1층, 중동식, 실내 및 야외, 3성급) *주소, 연락처 호텔정보 참조
- Ozone Restaurant (서양식) *Khartoum 2, Khartoum, +249-15-588-4170
- Organic Restaurant (서양식 간단메뉴) *15th Street, +249-15-511-1911
- Bangkok Restaurant (태국식, 일식) *Al Riyadh Khartoum, +249-92-115-5111
- Tokapi (터키식) *Aria 3 Block 1, Abualgasim Hashim Road, Khartoum, +249-90-682-9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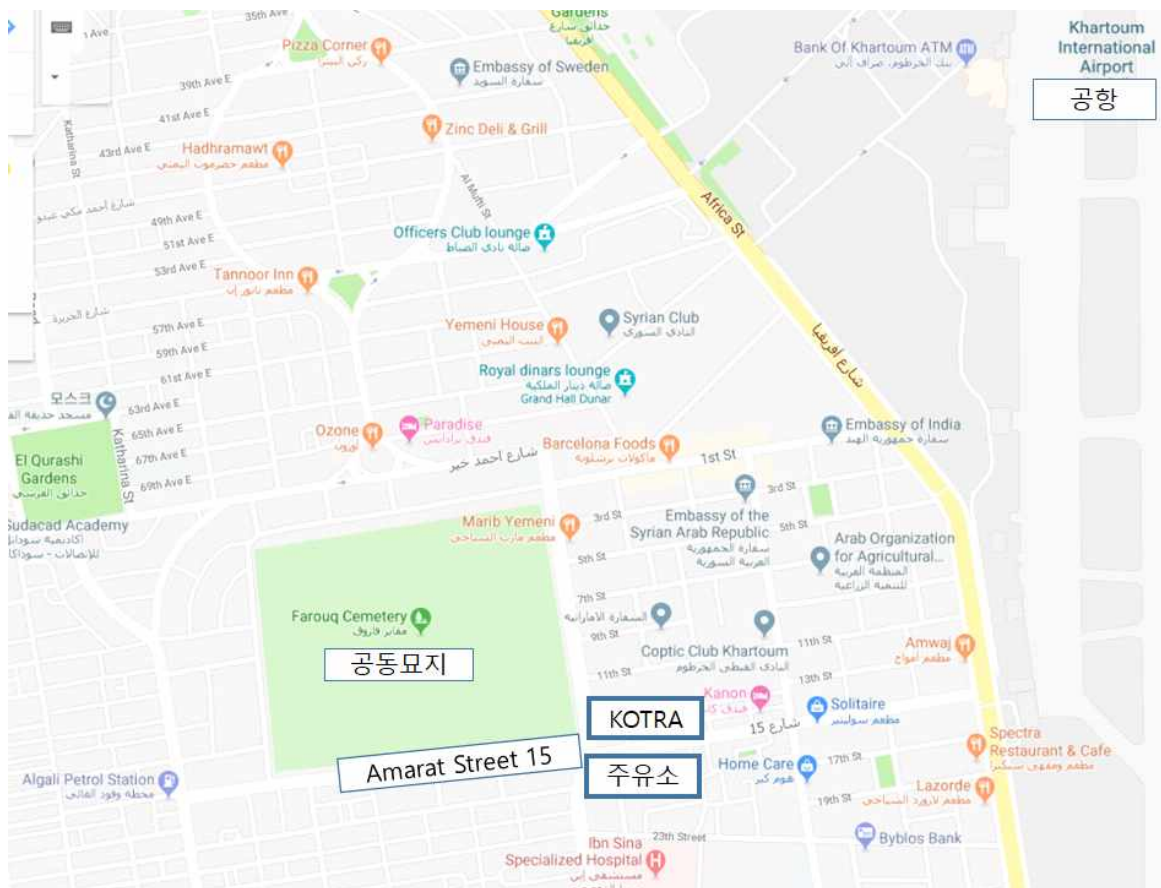


☐ 비상 연락망

○ 무역관

- 주소: Sudan Khartoum, Amarat 15., No 1/60, Block 9/10, Mutasim Izz Eldin Building
2 층 (나일주유소 맞은편 붉은 벽돌 건물)
- 카르툼 국제공항에서 10분 거리, 택시로 U\$3불내외/ 100 SDG
- 전화/팩스 : +249-183-498845 / +249-183-498860
- 임성주 관장 휴대폰 : +249-912-736-349

무역관 약도



○ 주수단 한국대사관

- 주소 : House No 55, Al-Jazira St. 56, Khartoum 2
- 전화/팩스 : +249-183-580031 / +249-183-580025

○ Royal Healthcare응급실 : +249-156-550-150/1

○ 경찰서 : +249-999 / 777

3. 경제/산업동향

〈참고〉 수단시장의 전략적 가치

- 인구 4천만명, 국토 186만km²(세계 16위)를 보유한 GDP 기준 아프리카 3대시장 (2017년 기준 GDP 1,231억 달러로 나이지리아, 남아공에 이어 3위)
- 아프리카와 중동을 연결하는 전략시장으로서의 가치 중요
 - － 지리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하나 종교, 문화, 교역 면에서 중동국가의 특징이 강함. 북으로는 이집트, 남으로는 중앙아프리카 등 7개국 및 홍해와 접경
 - － 수단은 현재 아프리카연합(AD) 및 아랍연맹(AL)에 동시 가입
 - * 이로 인해 과거 대우그룹은 김우중 회장 시절 수단에 주목, 제조(제약, 섬유, 타이어, 피혁)는 물론 호텔, 금융업까지 광범위 하게 진출한바 있음.

주요 경제 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망치)
인구	백만 명	35	36	37	38	40	41	41	42
명목 GDP	억 달러	—	—	822	967	956	1,231	308	284
1인당 명목 GDP	달러	1,396	1,462	1,629	1,715	1,408	1,123	791	795
실질GDP성장률	%	0.5	4.4	2.7	4.9	4.7	4.3	-2.3	-2.5
소비자물가상승률	%	46.0	34.2	25.7	12.6	30.2	25.2	72.9	41.7
총수출	억 달러	40.7	47.9	44.5	31.7	30.9	41.0	34.8	29.1
(對韓 수출)	백만 달러	43	122	31	18	12	22	58	—
총수입	억 달러	92.3	99.2	92.1	95.1	83.1	91.3	78.5	—
(對韓 수입)	백만 달러	137	166	141	163	149	164	127	—
무역수지	억 달러	△51.6	△51.3	△47.6	△63.4	△52.2	△50.3	△43.7	—
경상수지	억 달러	—	—	△35	△55	△42	△46	△47	△44
외국인투자유치	억 달러	23	17	13	17	11	11	—	—
환율(연평균)	현지국/US\$	4.43	5.70	5.97	6.09	6.59	6.68	47.54	60
총고정투자증가율	%	△23.2	8.3	0.0	4.5	3.7	8.0	1.1	1.3
실업률	%	14.8	15.2	19.8	21.6	20.6	19.6	19.5	19.6
대외 부채	억 달러	—	—	468	498	527	561	635	687
외환보유고	억 달러	—	—	1.8	1.7	2.0	2.0	1.2	1.5

주 1: 2019년은 전망치 (2019.8월 기준)

주 2: AfDB(연차통계북 2018)에 따르면 수단 2017년 기준 GDP(명목)는 \$1,294억 달러로 나이지리아 \$3,764억 달러, 남아공 \$3,489억 에 이어 SSA 3위였으나 이었으나 현지화 평가절하 등 영향으로 2018년 GDP 급감, 인구는 나이지리아, 콩고, 탄자니아, 남아공, 케냐에 이어 SSA 7위권

주 3: 환율은 수단 중앙은행 고시 기준 (그러나 실제 시장환율과 큰 갭 존재)

자료: EIU Country Report(2019.8), WB(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9.1), IMF(World Economic Outlook, 2019.3), UNCTAD(Foreign Direct Investment), 인구(수단 통계청), 교역통계(수단 중앙은행 2019.3) 한국관세청



1. 정치 환경

□ 쿠데타 등 정국불안 딛고 민군합동 과도정부 운영 합의, 안정화 단계

- 수단, 지속된 경제위기로 2018.12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발 이후, 국가 비상사태 선포(2월), 쿠데타 발발 및 군과도위 장악(4월), 민정이양 요구 시위 대 진압과정에서 대량 유혈사태 발발(6월) 등 정국 불안 심화
 - 수단 경제는 2000년대 석유생산에 힘입어 호황 기록, 그러나 △2011년 남수단 독립시 수단 보유 유전의 75%가 남수단에 귀속(석유 수출 급감), △미국발 경제제재(1997~2017), 테러지원국 지정(1993~현재)에 따른 국제사회 지원 및 투자 저조, △30년 독재(부패무능) 정권 지속된 탓에 극심한 외화난 속에 위기 심화
 - * 2018년 물가상승율 70%대 (비공식 100%) 이상, 시장환율은 1년전 대비 2.5배 상승, 빵, 석유 등 생필품 부족, 외화 및 현지화 유동성 부족으로 국민불만 가중
- 수차례 위기 딛고 국제사회 지원, 민주항쟁 통해 민군합동 과도체제 운영 합의
 - AU, 서방 등 지원하에 수단 야권연대-군과도위측 향후 39개월간 민군 합동 과도정부 운영안 합의 (8.17일 최종 서명)
 - 수단 국민과 국제사회는 일제히 8.17일 합의를 환영, 일부에서는 ‘아프리카 민주항쟁의 모범사례’ ‘세러은 시대의 서막’ 이라고 평가
 - 주요 합의 및 서명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향후일정 : 정식 서명식 개최(8.17), 향후 민군대표자회의(ruling sovereign council) 위원 지명, 총리 임명, 내각 구성, 민군대표자회의-내각 회의 개최 (9.1) 통해 민군합동 과도정부 체제 출범
 - * 정식 서명식 개최후 39개월간 민군합동 과도정부 체제 운영, 이후 선거 통한 정부 출범
 - * 입법기관은 서명식후 90일내 구성, 300명 이하, 이중 40%는 여성에 할당, 총의석의 67%는 야권연대에, 나머지 33%는 과거 바시르 정권을 제외한 여타 정당에 할당
- 과도정부 기간중 크고작은 불안요인 존재하지만 이를 극복, 원활한 과도체제 운영 및 선거 통한 민주정부 설립시 수단 경제 급반등 기대
 - 과도체제 및 민간(민주) 정부 성공시 미국발 테러지원국 해제, 서방 등 국제사회의 지원 및 투자 통해 수단 경제 급반등 예상



□ 美경제제재 해제에도 불구하고 테러지원국 지위 지속

- 수단은 과거 다르푸르 등 내전에서 학살, 인근국 테러지원혐의로 미국에 의해 오랜 제재 조치 지속
 - 2017.10월 20년간 지속된 미국발 경제제재가 전격해제되었으나 테러지원국 (1993~현재) 지정 조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
 - 이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무역투자, 금융거래 자유화라는 경제제재 해제효과를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채 수단 경제 위기 심화
- 수단정부는 미국과의 테러지원국 해제 협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로 2018.11월 양국은 지정 해제를 위한 협상 프레임워크 합의
 - * 美의 6개 핵심 요구 사항 : ①對테러 방지 협력강화, ②종교, 언론 자유를 포함한 인권 개선, ③(분쟁지역 등에 대한)인도적 접근 강화, ④내부 적대행위 중단, 평화 정착에 유리한 환경 조성, ⑤테러 관련 혐의에 대한 명백한 소명, ⑥북한 관련 UN안보리 제재 준수
- 2019.상반기 수단 위기, 9월 민군합동 과도정부 출범은 미국의 對수단 테러지원국 해제 검토의 핵심 평가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

□ 기타 정치 상황

- 다르푸르, 청나일, 코르도판 지역 내전도 완화된 상태이나 인도적 지원품 배분 등에 대한 이견으로 불안요인 존재, 수단 정국 불안 확산시 동 지역 상황도 영향 가능성
 - 일부 지방 반군(군벌) 세력은 8.17일 야권연대-군과도위 협정에도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
- 이외 2018.9월 남수단-반군간 평화협정 역시, 많은 취약점을 내포, 실제 성공적으로 이행될지에 대한 우려 존재



2. 경제/무역투자 환경

□ 과도체제 원활한 운영 및 美 제재해제 본격화시 수출입, 투자 활성화 기대

- 美, 2017.10.12일부로 무역투자, 금융거래 금지 등 대부분의 제재 해제
 - 골자는 ▲미-수단간 무역 허용, ▲미국인의 對수단 투자허용, ▲미국인의 수단내 석유/화학산업 진출 허용, ▲수단내 기관/개인과 금융거래 허용
 - 단 테러지원 4개국(이란, 시리아, 수단, 북한)에 여전히 포함돼 있어 무기류 수출 등은 계속 금지
 - * 테러지원국에 대해서는 ▲대외원조 금지, ▲방산물자의 수출 및 판매 금지,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국제금융기관(IMF, WB)의 대주재국 자금 공여 및 부채탕감 관련 논의 반대 투표 등의 제재 조치가 유지되며, 테러지원국 해제 여부는 별도 리뷰 예정
- 아직까지 테러지원국 지정 상태로 경제제재 효과 발현되지 않고 있으나 테러지원국 해제 현실화시 무역거래 활성화,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인프라 개발 등 경제 회복 기대

□ 남수단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석유수출 부수 효과

- 2018.9.12.일 타결된 남수단 정부-반군간 평화협정 정상 이행 가정, 내전으로 급감했던 남수단 석유 증산 본격화시, 수단은 송유관 사용료 수입, 보상금 추가 청구, 안정적 석유 공급망 확보 통해 막대한 수익 기대
- 이외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국, 터키 기업 등이 수단내 석유 생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기대

□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5-2019) 시행

- 긴축재정, 수입억제 및 수출산업화를 통한 경제구조 개편 추진
 - * 5개년 계획 구성은 경제, 상품, 서비스, 인프라, 사회복지, 인적자원 개발 등으로 구성
- 광물, 농축산 자원의 수출산업화, 제조업 육성, 외국인투자유치가 핵심
 - 제조업 우선 육성분야로 자동차, 기계조립, 태양광, 관개 및 농업장비, 식음료, 제약 등 제시
 - 광업, 농축산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금, 참깨, 검아라빅, 가축류 수출 확대, 석유개발 추진
 - 육성 분야에 대한 원부자재 수입관세 면제, 대출 우대, 인프라 지원, ODA 자금 우선 지원 등



□ 엄격한 외환관리 시행

- 미국의 경제제재, 저유가에 따른 수출감소와 그에 따른 외환부족으로 엄격한 외환 통제 진행중. L/C개설도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수수료도 3% 이상이지만 그나마 해외은행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유명 무실
- 외화 반입시 공항내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시중은행에서 달러를 현지화로 환전하는 경우도 자금의 출처를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임. 개인당 반출 외화 금액도 3천 달러로 제한되고 있음.

□ 수입 규제 및 관세·비관세 장벽

- 수단은 아직까지 WTO 미가입국으로 수입시 고율의 수입관세 및 기타 세금이 복잡하게 부과됨을 감안한 가격 정책 필요
 - 자국산업 보호 등의 명목으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어 수입가에 비해서도 현지 Retail Price는 매우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다수임.
 - 실제 수입을 위한 세금 체계는 관세 + VAT + 영업세 + 기타조세(Additional Duty) 등으로 복잡하며, 수입 통관시 수입자가 일괄 납부하게 됨.
 - 농기계,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 필요에서 수입관세가 면제되며 영업세(3%)만 납부
- * 관세 : 세제류 73%, 화장품 93% 등
- 관세를 제외한 특기할 만한 수입규제, 비관세 장벽은 없으나 이슬람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수단 정부는 알콜류, 음란물, 돼지고기 등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품목의 수입은 엄격히 제한

□ 투자진출 환경

- 무역, 도소매업의 경우 외국인 단독투자 불허 (합작투자만 허용)
- 아직까지 한국-수단간 투자보장협정이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로 직접투자 방식을 통한 진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미비.
- 단 美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시 외국기업의 대수단 투자가 활기를 띌 가능성이 있는바 투자대상국으로서의 잠재적 가치 보유



3. 산업 환경

- CIA Factbook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수단의 산업별 GDP 구성은 농축산업 39.6%, 산업(제조 및 광산업) 2.6%, 서비스 57.8%로 구성
- AfDB자료는 농업 비중이 31%, 제조업 비중은 9.8% 정도로 집계

전체 GDP 대비 산업별 비중

구 분	2009년 (%)	2013년 (%)	2017년 (%)
농림축산	32.6	34.5	30.8
광산업(mining)	11.5	5.1	6.3
제 조	8.5	9.0	9.8
전기,가스,수도	0.6	0.9	0.3
건 설	4.4	4.8	3.5
유통 및 요식업	15.0	16.8	16.2
교통, 통신	10.3	13.6	13.3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	9.1	8.0	12.4
공공서비스, 국방	6.8	6.4	5.0
기 타	1.1	0.9	2.3
총 계	100	100	100

자료 : AfDB

- 수단은 농업 종사 인원이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산업인프라와 자본, 숙련노동력이 부족하여 설탕, 시멘트, 일부 자동차 및 가전 조립, 기초 플라스틱제품 생산 외 뚜렷한 산업기반이 없는 상태임.
- 우리 기업의 수출활동과 관련된 수단내 주요산업별 동향은 아래와 같음.

주요 산업별 동향

산 업	산업별 동향
제 조	• 공산품의 90% 내외는 수입에 의존, 자체 생산품은 설탕, 시멘트, 제약(복제약), 기초 플라스틱, 자동차 조립 등에 한정, 정부는 제조분야 외국인투자 희망 * GIAD(수단 최대 공기업중 하나)는 현대차, DAL그룹은 기아차 등과 손잡고 CKD, DKD 방식의 승용차, SUV 조립 생산 중
농축산	• 수단 대표산업으로 농업 기계화에 관심, 농기계, 비료 등 수요 증가세 • 사우디, UAE 등 중동계 자본 농업 투자, 수단정부도 증액투자 유치 중
광산업	• 수단은 남아공, 나이지리아에 이은 아프리카 3위 금 생산국, 금은 수단 전체 수출의 1/3차지, 석유 대체 수입원으로 광산업 수출산업화에 역점 • Mining 관련 장비, 화학물질 수요 지속 증가세
유통 (수출입 포함)	• 수도 카르툼(인구 8백만명)으로의 도시화 진전, 소비 분화로 패턴 양극화 • 카르툼 시내 하이퍼마켓 성행, 유통 부족 상태로 소비재 수요 증가세
건설, 인프라	• 美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中.日.중동.유럽.국제기구(UN, AfDB, WB 등)의 프로젝트 자금 지원은 지속 • 중국의 건설인프라 차관 등 해외로부터의 원조성 공여가 정부의 세수 부족 보완 효과

4. 무역투자 동향

1. 수단의 무역투자동향

□ 최근 수출입 동향

- 남수단 독립후 석유를 대체할 수출품 부족으로 50억 달러 내외 적자 지속
- 수단 중앙은행에 따르면 수단 수출은 2013년 48억 달러 기록 후 하락세, 2018년은 35억달러에 그침. 남수단 독립시 보유 유전의 75% 상실, 금, 농축산물 (참깨, 산동물 등)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석유를 대체하기에 역부족
- 수입은 2017년 91억 달러에서 작년 79억달러로 감소, 중국, 중동국가로부터 차관 유입이 수입재원으로 활용됐으나, 이들 국가로부터의 차관 유입도 위축된 상태
- 교역 대상국은 수출은 UAE, 중국, 사우디순, 수입은 중국, 인도, UAE, 사우디, 러시아 순

수단 대외 교역 동향

(단위: 억 달러)

구분	2012년	2013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출	40.7	47.9	44.5	31.7	30.9	41.0	34.8
수입	92.3	99.2	92.1	95.1	83.2	91.3	78.5
수지	-51.6	-51.3	-47.6	-63.4	-52.3	-50.3	-43.7

자료 : 수단 중앙은행

□ 수단 수입시장 동향 및 한국의 위치

- 2018년 기준 주요 수입대상국별 비중은 중국(23%), 인도(11%), UAE(10%), 사우디 아라비아(9%), 러시아(8%), 이집트(6%), 터키(5%), 독일, 태국(5%) 순, 대한민국(2%)

수단의 국별 수입동향 및 수입시장 점유율

(단위: 천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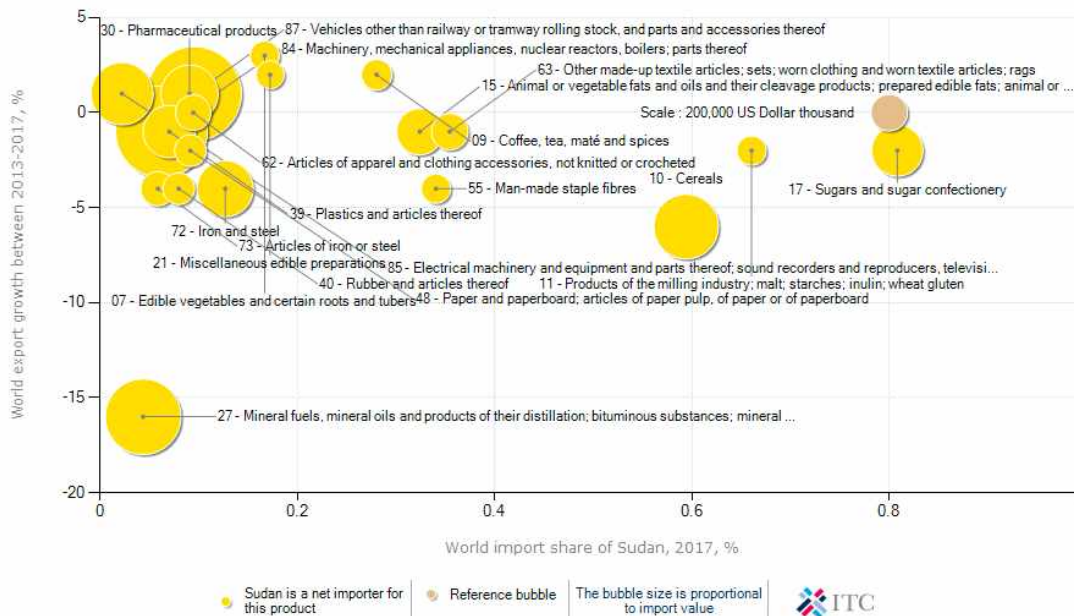
순위	수입국가	수입액	수입시장 점유율(비중)
1	중국	1,657,756	23%
2	인도	794,044	11%
3	아랍 에미리트	746,018	10%
4	사우디아라비아	648,759	9%
5	러시아	595,659	8%
6	이집트	417,815	6%
7	터키	374,054	5%
8	독일	233,324	3%
9	태국	180,931	3%
10	오만	159,413	2%
11	일본	143,501	2%
12	인도네시아	118,512	2%
13	대한민국	112,897	2%
14	우크라이나	103,849	1%

자료: 수단중앙은행

- 품목별로는 아래 보는 바와 같이 원유, 밀, 설탕, 철강, 전기전자 및 기계 장치, 의약품, 트랙터, 플라스틱류 등이 주 수입품이며, 수입증가율면에서는 자동차및 부품, 의약품, 기계류, 의류, 플라스틱류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수단의 품목별 세계전체 수입규모 대비 비중 및 세계 수출증가율

Size of the market and growth of international supply
for products imported by Sudan in 2017



주: 원의 크기는 수단전체 수입액(갈색원: USD20만), 세로축은 2013 ~ 2017년 기간중 수단전체 수입액 증가율, 가로축은 세계전체 수입액에서 수단 비중 의미

자료: WTO ITC, Trademap.org

- 아래 ITC 통계에 따르면 수단 수입시장내 한국제품 점유율은 자동차 및 부품류 14%, 유기화합물 16%, 기계류 5% 등으로 집계. 그러나 현지생산 등을 감안시 한국 브랜드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자동차 50% 이상, 가전 70% 이상 등으로 추정됨.

수단 수입시장내 한국제품의 품목별 점유율

(단위: 천달러, %)

순위	품 목	2017 한국으로부터 수입액	2013-2017 연평균 증감율	수단수입시장내 한국산점유율
	수입 총액	315,237	-1	3
1	자동차 및 부품류	196,919	-5	14
2	기계류	63,208	2	5
3	전기장치	16,738	3	3
4	유기화합물	11,844	-5	16
5	플라스틱 및 제품	7,856	-1	2
6	고무 및 제품(타이어)	4,059	-3	3
7	철도, 철도차량 및 부품	2,336	-9	8
8	비누, 세제류	2,248	8	4
9	기타 화학물질	2,150	0	2
10	의약품	1,242	24	0

자료: WTO ITC, Trademap.org



□ 외국인투자유치

- 과거 수단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의 석유개발 및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등 중동국가들의 금융, 농업투자에 집중
 - 중국 :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의 석유개발 투자 등 100여 건
 - * 中 농무부 장관 방문('16.9월), 인민의회 부의장, 석유공사 부회장 방문(2017.8월) 등
 - 일본 : 유무상 ODA 중심의 정부 프로젝트 지원에 집중, 개별 투자 진출기업은 없음
 - EU : 직접투자 기업은 극소수이고 개별 수출을 위한 에이전트 중심 거래
 - * 헝가리 지역거점 무역사무소 설치 및 운영(2014)
 - 말레이시아 : Petronas(석유), 철강 분야 등에서 합작법인 운영 중
 - 중동 : 금융, 농업 부문에 집중(개별기업정보는 미공개)
 - 인도 : TATA(자동차), 석유 개발 등 다수 진출
- 그러나 美 제재 해제(2017.10월) 효과 발휘의 불투명성, 테러지원국 지정(1993~현재)이 국내외 투자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 최근 10여년간 외국인투자 부진
 - 이밖에 최근 수년째 지속되온 경제위기에 따른 반정부 시위 확산, 중국 경기 둔화 등도 對 수단 투자확대를 가로막는 장애요인
 - 2000년대 중반까지 석유개발을 위한 中, 인도 등의 투자진출이 활발했지만 2011년 남수단 독립시 수단 보유 유전의 75%가 남수단에 귀속된 탓에 중국, 인도발 투자도 크게 위축된 상태
 - 서구,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가 저조한 가운데 수단의 외국인투자유치는 사우디, 카타르, 두바이 등 중동국가에 당분간 의존해야 하는 상황임.

2.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협력의제

□ 수출

-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수단 수출 규모는 128백만달러로 우리 총수출(USD6,049억)의 0.02%에 불과, 수단으로부터 수입액도 58백만달러로 비중면에서는 미미한 수준임.
- 그러나 美제재 여파로 인해 수단으로의 직수출보다 두바이 등 중동 국가 등을 통한 우회 수출을 감안하면 실제 수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됨.
- 관세청을 통해 집계된 2018 연간 對수단 수출 기업수는 약 800여개사, 이중 60% 정도가 자동차부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소규모 무역상으로 추정됨.



한-수단 교역 동향

(단위: 천달러, %)

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8년	127,563	-22.3	57,587	166.3	69,976
2017년	164,174	10.0	21,629	86.6	142,545
2016년	149,183	-8.7	11,588	-35.0	137,595
2015년	163,358	16.0	17,819	-42.2	145,539
2014년	140,815	-15.1	30,834	-74.8	109,981
2013년	165,870	20.9	122,166	182.7	43,704
2012년	137,249	-22.9	43,214	93.5	94,035
2011년	177,936	5.8	22,338	28.6	155,598

자료: 관세청

- 2018년 현재까지는 한국의 對수단 주요 수출 품목이 자동차 및 건설중장비 부분품, 자동차(승용), 가전, 석유화학, 의약품 등이 주를 이뤘으나 미국의 對수단 제재해제 본격화시 경제 개발을 위한 자본재, 소비재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8년 기준 자동차, 건설광산기계, 자동차 부품 수출이 전체 수출의 56% 점유

한국의 對수단 20대 수출품목

(단위: 천달러, %)

순위	품목명	2017년			2018년		
		수출액	비중	증감률	수출액	비중	증감률
	총계	164,174	100%	10.0%	127,563	100%	-22.3%
1	자동차	44,628	27%	21.9	26,549	20.8%	-40.5
2	건설광산기계	28,947	18%	40.0	24,291	19.0%	-16.1
3	자동차부품	21,060	13%	9.4	20,355	16.0%	-3.3
4	건전지및축전지	7,870	5%	13.8	9,321	7.3%	18.4
5	농약및의약품	6,698	4%	117.1	8,557	6.7%	27.7
6	합성수지	6,082	4%	-1.0	6,997	5.5%	15.1
7	기타석유화학제품	9,729	6%	50.7	3,935	3.1%	-59.6
8	정밀화학원료	1,592	1%	49.1	2,733	2.1%	71.7
9	원동기및펌프	2,016	1%	-75.6	2,394	1.9%	18.8
10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585	2%	1.5	2,367	1.9%	-8.5
11	고무제품	3,138	2%	-26.9	1,757	1.4%	-44.0
12	종이제품	976	1%	236.9	1,703	1.3%	74.4
13	신변잡화	1,445	1%	-57.3	1,692	1.3%	17.1
14	플라스틱 제품	2,096	1%	16.6	1,250	1.0%	-40.4
15	전자응용기기	2,032	1%	55.0	998	0.8%	-50.9
16	농산가공품	265	0%	-30.8	946	0.7%	257.1
17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1,219	1%	-1.6	883	0.7%	-27.5
18	기타기계류	1,981	1%	152.9	805	0.6%	-59.4
19	기타정밀화학제품	4,486	3%	63.0	773	0.6%	-82.8
20	섬유및화학기계	1,017	1%	158.0	673	0.5%	-33.8

자료: 한국 관세청



- 한편 2018년 기준 한국의 對수단으로부터의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US\$39백만), 동스크랩(US\$14백만), 연제품(US\$2.3백만), 알루미늄스크랩, 식물성엑즙 등임.
- 2015년까지 폐밧데리도 주요 수입품이었으나 지금은 수단에서 수출금지된 상태며, 2015년의 경우 2백만 달러 규모의 참깨가 수입된바 있음.

□ 우리기업의 對수단 투자진출 현황

- 한국수출입은행이 집계하는 해외투자통계에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우리기업의 최근 수년간 對수단 투자진출은 미미한 상태임.
- 현재 수단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은 포스코대우-신풍제약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삼성전자(연락사무소), LG전자(연락사무소) 정도임.
- 이외 현대기아차가 현지 딜러를 통해 자동차 판매중

* 대우그룹의 對수단 투자진출 사례

- 일찍이 대우는 김우중 회장 시절, 중동-아프리카 중간에 위치한 수단을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인식, 금융, 제약, 호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단에 집중 투자한바 있으며, 당시 초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자리매김.
- 이후 대우그룹 매각과 함께 현재는 신풍제약, 현지기업과 합작사인 제약부문만 운영중
- * GMC : 1988년 대우, 신풍제약, 현지기업이 합작투자한 의약품 제조법인으로 현지 소매 마케팅을 강점으로 현지 제약시장 매출 2위 기록중

□ 한-수단 경제협력 의제

- 수단 정부는 자국의 산업화, 광물, 석유 자원개발 정책 등에 한국기업 참여 희망
- DAL, GIAD, CDC 등 대기업들도 제조업 확장에 나서고 있어 우리기업의 플랜트, 설비, 부품공급 및 엔지니어링 분야 참여를 통한 상생협력 기회 존재
- 美제재 해제 본격화시, 무역, 투자전반에 우리기업과의 거래 확대 가능성 존재
- 남수단 분리독립에 따른 유전 상실, 저유가로 석유산업 투자가 정체된 가운데 최근 對수단 주요 투자는 금광 등 광산업(mining), 농업 분야에 집중
- 2011년 남수단 독립, 저유가로 인해 원유 수출이 줄면서 수단 정부는 제2의 외화 획득원으로 금 등 광물자원개발에 역점을 둠.
- 금은 석유에 이은 수단의 최대 수출품이나, 관료주의와 부패, 자본 및 인프라 부족이 여전히 대규모 광산개발의 걸림돌로 작용
- * 2017.7월 캐나다 Orca Gold사가 수단 북구에서 채굴작업을 개시했다고 발표



5. 수단 역사 및 한국과의 관계

□ 수단 역사

- BC 2150 - AD 350 PHARAOH 전국시대 (이집트화)
- AD 350 - 1504 : NUBIA 기독교왕조, 1821 까지 FUNJ SULTAN 국
- 1821 - 1885 오토만 터키계의 정복으로 이집트총독 치하에 들어감.
- 1889 이집트를 정복한 영국이 수단정벌, 영국식민통치에 들어감.
- 1956. 1. 1 수단 독립성취, 식민정책 결과로 남북부간 지역대립 심화
- 1958.11. IBRAHIM ABOUD 장군 무혈 쿠데타로 군사 정권수립
- 1969.5. GAA FAR MUHAMMED NUMEIRI 군사혁명(사회주의 선언)
- 1985.4.6 소수 군사령관에 의한 군사 쿠데타 성공(NUMEIRI 축출)

- 1989.6.30 EL BASHIR 준장에 의한 군사 쿠데타
- 1991.1. 회교율법 SHARIA LAW 실시
- 1993.10. OMER HASSAN EL BASHIR 혁명위원장겸, 대통령임명
- 1995.6.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 암살 미수사건발생
- 1996.3.6-17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El-Bashir 당선)
- 1996.4. UN 안보리 결의 1054호 채택(정부/수단군 요원 입국제한)한)
- 1996.8. UN 안보리 결의 1070호 채택(수단항공의 국제선 운항 금지)

- 2000.12 대통령, 국회의원선거, 현 El-Bashir 대통령 재집권 성공
- 2002. 7. 20 정부-반군간 Machakos 의정서 체결
- 2003. 2. Darfur 사태 발생, 2005. 1. 평화협정체결, 남북내전 종식
- 2009.12.29 남부수단 분리를 위한 주민 투표법 개정안 통과
- 2010.4. 대선/총선/지방의회선거동시 실시(El-Bashir 재집권)
- 2011.7. 남수단 독립

□ 한국-수단 외교/통상 역사

- 1976. 4. 21 영사관계 수립, 1977.4.13 대사관으로 격상
- 1977. 6. 4 김동근대사(제1대) 신임장 제정후 2016년 5월 이기석 대사 부임
- 2009. 11. 10 KOTRA 카르툼 무역관 개설